

雪中梅

《雪中梅》 연구

崔元植*

1. 머리말
2. 변안자 具然學
3. 원작자 末廣鐵腸
4. 《셋쥬바이》와 《설중매》
5. 《설중매》와 독립협회운동
6. 《설중매》의 인물유형과 기본구성
7. 맺음 : 《설중매》와 그 이후 소설

1. 머리말

《설중매》(1908)는 애국계몽기의 대표적인 정치소설의 하나이다. 비록 변안이란 한 계는 있지만 독립협회운동을 반영하여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기본적인 書誌에서부터 많은 오해 속에 버려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李人植이 지어 원각사 무대에 올린 최초의 신극이라는 학설인데, 이는 金台俊의 《조선소설사》(1933)와 金在喆의 《조선연극사》(1939)에서 언급된 이래, 그 이후 문학사가들이 답습해온 터이다.¹⁾ 북한학계에서는 이 작품을 崔瓚植의 변안으로 인정했는데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²⁾

이 왜곡된 서지를 엄밀한 고증 위에 바로 잡은 것이 金光鏞교수이다. 그는 이 작품이 스에히로 닛쵸(末廣鐵腸)의 《셋쥬바이》(雪中梅, 1866)를 具然學이 변안했음을 명확히 밝혔던 것이다.³⁾ 그후 李杜鉉교수는 이 작품이 원각사에서 공연된 적이 없음을 실증함으로써 최초의 신극설을 부정하였다.⁴⁾

*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 사정은 金光鏞, 《雪中梅》, 《思想界》제3권 10호(1955.10), 265~266면을 참조할 것.

2) 박종원·최탁호·류만, 《조선문학사 : 19세기말~1925년》, (열사람, 1988), 88면

3) 金光鏞, 앞글, 263면

4) 李杜鉉, 《한국신극사연구》, (서울대출판부, 1966), 29~30면

그러면 왜 이러한 오해가 생겨났을까? 우선 최초의 신극설은 이 작품에 그 유명한 연극개량론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작가 문제의 혼동은 구연학의 無名에 말미암을 터이다. 그는 이 작품 단 한편을 남겨놓은 채 지금까지 거의 어둠에 가리워진 작가이기 때문이다.

2. 번안자 具然學

《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 隆熙원년(1907) 융희 2년·융희 4년에 각기 작성된 구연학의 이력서 3통이 실려 있다. 매우 소략하지만 그의 삶의 편린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그의 관향은 綾城. 甲戌年 7월 9일에 태어났다.⁵⁾ 갑술년이면 高宗 11년(1874)이니 까 대원군정권이 몰락한 다음해, 개항 이태 전이다.

주소는 충남 海美郡 濂率面 鳳村 1통 2호,⁶⁾ 융희 2년 당시 그의 현주소는 서울 북부 碧洞 43통 3호,⁷⁾ 지금의 안국동 부근이다.

이력서는 光武 8년(1904)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 해 3월 中橋義塾에 입학하여 이듬해 11월 因事退學하였던 것이다.⁸⁾ 중교의숙은 樂英義塾(1895~1901)·興化學校(閔泳煥이 설립 : 1895~1911)와 함께 외국어교육으로 이름 높은 초창기의 私學인데, 이에 대해 李萬珪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896년 閔泳綺가 특권계급 자제에게 어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中學洞 곧 옛날 中學 자리에 중교의숙을 설립하고 일어 영어 한문을 교육시켰었다. 1906년에 폐교되었다.⁹⁾

중학은 조선왕조가 선비를 기르기 위해 서울의 중앙·동·서·남에 두었던 四學의 하나로, 갑오경장때 혁파되었다. 구연학이 중학의 학통을 이은 중교의숙에서 수학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의 신분이 높았다는 점과 고도의 외국어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5) 《대한제국관원이력서》(담구당, 1972), 724면.

6) 윗책, 724면.

7) 윗책, 724면.

8) 윗책, 724면.

9) 李萬珪, 《조선교육사》下, (을유문화사, 1949), 69면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무슨 일로 이 학교를 일년 팔개월만에 퇴학하고 말았던가? 그가 퇴학한 광무 9년 11월은 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때이니 아마도 이 사건과 관계있는 것 같다. 더구나 이 학교의 설립자 민영기는 당시 탁지부 대신으로서 참정대신 韓圭高과 함께 조약에 반대하였던 인물이다. 물론 민영기의 반대를 세인은 뜻밖의 일로 받아들였다.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원흉의 하나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¹⁰⁾

광무 11년(1907) 7월, 그는 軍部 翻譯官補에 임명된다. 그러나 이것도 군대해산으로 군부가 폐지되는 바람에 두달만에 실직하였다. 이듬해 2월 다시 내각 주사(九品)로 임명되는데, 융희 4년 이력서에 그 현주소가 “光化間前 官報課內”¹¹⁾로 돼있는 것으로 보아 관보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것 같다.

《설중매》는 융희 2년 5월 滙東書館에서 발간되었다. 내각 주사로 복직한 뒤의 일이다. 그렇지만 이 작품의 번안작업은 아마도 그가 번역관보로 일하다가 퇴직한 광무 11년 7월에서 내각주사로 복직한 융희 2년 2월 사이, 약 5개월간의 실직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불우했던 이 시기에 그는 왜 《설중매》의 번안에 몰두했을까? 이 작품의 교열자가 이 시기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작가 李海朝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구연학의 지향과 《설중매》의 주지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가는 바가 없지 않다.

이 작품 제4회에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여관에 기숙하던 어느 학도가 밥값 대신 주인에게 맡기고 간 책속에 丁茶山의 문집 내권이 있다. 원작에는 《신기헌》(振氣篇)과 《산요시고》(山陽詩稿)인데,¹²⁾ 전자는 메이지 2년(1869)에 간행된 勤王志士들의 시문집이고, 후자는 한시로 이름 높은 유학자 라이산요(賴山陽: 1780~1836)의 시집이다. 구연학은 이 책들을 실학 최고의 사상가 정다산(1762~1836)의 문집으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는 아마도 신소설 속에 다산이 등장하는 최초의 예로 되거니와, 다산의 첫

10) 鄭喬, 《大韓季年史》下 (국사편찬위원회, 1974), 176면 “泳綺以閔族之庶孽 驟登高官, 醜態難狀, 以度支大臣, 債誤財政, 陷民生於溝壑之中, 今之書否字於新條約, 人稱誠是意外.”

11) 《대한제국관원이력서》, 783면

12) 末廣鐵腸, 《雪中梅》, 《明治政治小説集》(東京: 角川書店, 1964), 356면

유배지 해미가 구연학의 고향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봉건제의 모순이 격화되는 시기에 심각한 사상적 모색을 통해서 근대적 의미의 인민을 발견한 다산을 슬그머니 재평가하고 있는 이 장면은, 이해조가 《자유종》(1910)에서 星湖 李瀾(1681~1763)의 사상을 깔고 있는 것¹³⁾과 짝할 빛나는 대목이다.

요컨대 작가는 다산과 독립협회운동의 연속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독립협회운동의 새로운 계승에서 멸망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부활의 희망을 보았던 것이다.

3. 원작자 末廣鐵腸

《설중매》의 원작자 스에히로 뎃쨌(1849~1896)는 일본의 저명한 자유민권운동가요 대표적인 정치소설가의 하나이다.

그는 1849년 이요(伊予)국, 오늘날의 에히메(愛媛)현 우와지마(宇和島)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시게야스(重恭), 뎃쨌는 별호이다.¹⁴⁾ 그 별호는 당 현종의 재상 廣平侯 宋璟을 사숙한 데서 유래했으니, 直諫으로 유명한 송광평의 강직한 성품을 후인들은 鐵石心腸으로 일러왔다. 니노미야 고쇼(二宮孤松)가 《셋쥬바이》상편의 서문에서 지적했듯이, 뎃쨌는 평소 “송광평의 再來를 자임”¹⁵⁾했던 터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藩의 勘定役(회계관)으로 봉직했는데, 父兄이 모두 한시에 능했다. 특히 형 鶴洲는 우와지마의 한 명물로 일컬어진 바, 일찍이 勤王維新운동의 지사로 활약하였다.¹⁶⁾

이와 같은 가풍에서 그는 정통유학의 과정을 거쳤다. 5세에 공부를 시작하여 11세에는 이미 사서오경을 마치고 13세에 번의 명륜관에 입학, 21세에는 그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그가 막부의 교학 주자학으로부터 이탈하여 양명학에 경도되었다는 점이다.

13) 崔元植, 〈이해조 문학연구〉, 《한국근대소설사론》(창작사, 1986), 52면.

14) 柳田泉, 《政治小説研究》中, (東京:春秋社, 1968), 320면.

15) 《明治政治小説集》, 324면.

16) 柳田泉, 앞책, 320면.

그리하여 1873년(메이지 6년) 그의 나이 스물다섯살, 결연히 번을 떠나 새로운 개혁의 물결로 술렁이는 도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이듬해 말에야 겨우 대장성의 하위관리로 임용되었으니, 1875년 관료의 길을 포기하고 결국 언론계로 투신한다. 아케보노(曙)신문의 편집장으로 정부공격의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른 그는 메이지정부의 언론탄압의 일환으로 제정된 新聞條例 최초의 희생자로 옥고를 겪고, 출옥 후에는 《朝野新聞》 편집장으로 활약, 다시 1876년 필화로 투옥되었다. 이 두번째 옥중생활에서 영어학습에 독학으로 전념하여 출옥 즈음에는 간단한 영문서적에 해독할 정도에 이르니,¹⁷⁾ 한학 서생으로서는 놀라운 일이다.

출옥 후 그는, 국회개설을 목표로 맹렬하게 타오른 자유민권운동에 참여한다. 1879년 오메이사(櫻鳴社)의 중요한 사원으로 영입된 그는 오메이사의 연설토론회에서 활약함으로써 민권운동의 기수로 떠올랐던 것이다. 누마 모리카즈(沼間守一)가 창립한 오메이사는 입법권을 국왕과 국회가 공유한다는 타협적인 원칙을 표명한 그 헌법 초안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듯이, 인민주권설을 명백히 한 릿시샤(立志社)와는 달리 점진주의를 표방하였다.¹⁸⁾

1881년 그는 오메이사에서 탈퇴하여 바바 다쓰이(馬場辰猪)가 주도하는 고푸이우카이(國友會)에 가담하였다. 그 명칭이, 프랑스혁명 시대의 신문 《인민의 벗》에서 암시를 받아 바바가 명명한데서 드러나듯이, 이 단체는 오메이사보다 급진적인 입장에서 있었다.¹⁹⁾ 아사쿠사(淺草)의 이부무라로(井生村樓)에서 개최되는 연설토론회로 명망을 얻은 계몽단체 고푸이우카이는 그 해 10월, 자유당 창당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릿시샤를 중심으로 고푸이우카이가 결합하여 창립된 자유당은, 1882년에 설립된 立憲改進黨의 영국식 점진주의에 대해 프랑스식 급진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 점진주의에 가까웠던 그는 바바 등 고푸이우카이 그룹과 함께 1883년 자유당을 탈당하여 따로 독립당을 결성하는 한편, 1884년에는 명치협회에 가입하여 입헌개진당과 연락을 통했다.²⁰⁾ 이 때부터 그의 보수화는 두드러졌으니, 급기야

17) 硯齋, 330면.

18) 遠山茂樹, 《日本近代史》I, (東京: 岩波書店, 1978), 57~58면.

19) 《明治政治小説集》, 461면, 前田愛의 補注 참조

20) 柳田泉, 앞책, 339면, 342면.

1884년 4월 상해에서 설립된 동양학관의 관장으로 나서게 된다. 동양학관은 말할 것도 없이 아시아 침략의 거점의 하나이다. 일찍이 서구열강에 대항하는 아시아연대론을 주장했던 그가 어느 틈에 국권론자 또는 제국주의자로 변모한 것이다.²¹⁾

이것은 단지 그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자유민권운동 전체의 변질과 관련된다. 자유민권운동의 민중적 전개 속에서 특히 1884년 지씨부(鐵父)의 대규모 민중봉기는 운동지도부를 급속히 보수로 회귀시켰거니와, 한편으로 자유민권운동 좌파 속에서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어 마침내 1882년에는 동양사회당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²⁾ 일본 국내에서의 급진적인 분위기의 고조와 함께 조선정세 즉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이 자유민권운동의 국권론으로의 변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먼저 전제관료정부와의 투쟁의 전열에서 이탈했으나, 1886년부터는 주로 대동단결운동에 분망하였던 것이다. 이 운동의 속셈은 물론 국권론을 표방한 지주·부르조아지 중심의 정당을 재건함에 있었다.²³⁾ 그리하여 자유민권운동의 투사에서 국권론자로 전향한 스에히로 뎃쵸는 국회의원에 두번 당선하고 두번 낙선한 정객으로서 1896년 48세를 일기로 永眠하였다.

4. 《셋쵸바이》와 《설중매》

먼저 《셋쵸바이》의 서지를 정리해 두자. 뎃쵸가 이 작품의 집필에 착수한 것은 1886년 1월. 늦봄에 초고를 탈고한 뒤 퇴고를 거듭하여 상편을 그해 8월 博文堂에서 출간하였다. 상편의 인기가 비등하자 그해 10월 하꼬네(箱根)에 칩거하며 하편에 몰두하여 한달 뒤 역시 博文堂에서 하편을 간행하였고,²⁴⁾ 1890년 嵩山堂에서 그 정정증보판을 내었다.

구연학의 《설중매》는 융희 2년(1908) 5월 회동서관에서 발간되었다. 그런데 우리 《설중매》의 표지화가 嵩山堂版과 거의 동일한 점으로 보아 번안의 저본은 정정증보

21) 遠山茂樹, 앞책, 124면.

22) 姜東鎭, 《일본근대사》, (한길사, 1985), 89면.

23) 遠山茂樹, 앞책, 140면.

24) 柳田泉, 앞책, 414면.

판으로 짐작된다.

두 본을 비교할 때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설중매》에 《셋쥬바이》의 ‘발단’이 탈락되었다는 점이다. 이 발단 부분의 時點은 메이지 173년, 그러니까 서기 2040년 3월 3일, 국회 개설 150주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날이다. 자유민권운동이 국회 개설을 목표로 했음은 앞에서 지적했거니와, 국회 개설에 소극적이었던 메이지정부는 1881년 독직사건으로 체제 위기에 몰리자 1890년에는 국회 개설의 조치으로 선수를 침으로써 민권파에 양보하는 듯 기선을 제압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⁵⁾ 국회 개설 4년전에 이 작품을 집필하면서 땃쫂는 국회 개설 150주년을 미리 축하하는 미래기의 의장을 도입하였다. 자유민권운동의 후퇴가 결정적으로 드러난 1886년에서 1887년 사이에 이러한 미래기가 유행했는데, 그 저류에는 정부의 선수에 속절없이 분열되는 운동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깔려 있었다. 다시 말하면 미래기의 작가들은 가까운 장래의 미래도를 구성하는 것에 의해 현실을 비판하고 그를 통해 미래를 추동하는 힘을 주려는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²⁶⁾ 이 점에서 일본 미래기의 의장은 애국 계몽기의 우리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몽유록적 요소와 다분히 상통하는 바가 없지 않다.

땃쫂가 꿈꾸는 일본의 미래는 어떠한가?

땅에는 수십만의 강병 있고, 바다에는 수백의 군함을 띄워, 세계 속에 일장기 날리지 않는 곳이 없어, ……위에는 지존지엄한 황실 있고, 아래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회가 있어, 진보·보수 양당의 경쟁에 의해, 매끄럽게 내각을 교대하고, 헌법 확정하여 법률을 잘 정비하고, 언론도 집회도 모두 자유로이 하니, (번역은 필자)²⁷⁾

입헌군주제의 확립을 통한 강력한 일본의 건설이라는 작가의 희망이 열렬히 표백되고 있다.

이 미래의 시점에서 본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국회개설 150주년 축일에 즈음해서 큰 비로 우구히스다니(鶯谷)의 언덕이 무너져 땅 속에 묻힌 《셋쥬바이》의

25) 遠山茂樹, 앞책, 73~74면.

26) 《明治政治小説集》, 459면, 前田愛의 補注 참조.

27) 앞책, 325면.

주인공 구니노 모도이(國野基)의 비석이 발견된다. 구니노가 국회개설을 전후해서 활약한 유명한 지사이며 그의 사적이 《셋쥬바이》라는 옛책에 실렸다는 것이 비문에서 판독되고 그 책을 우에노(上野)도서관에서 찾아 상편의 목록을 보이면서 발단부분은 끝나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수법이다.

그런데 우리 《설중매》에는 이 발단부분이 완전히 탈락했다. 대한제국의 멸망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만한 낙관도 감감했으리라. 아니 우리는 일본과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으니까.

《셋쥬바이》는 발단을 제외하면 상편이 7회, 하편이 8회, 모두 15회로 구성되었는데, 《설중매》 또한 15회로 원작의 줄거리와 인물들을 거의 충실히 따랐다. 다만 약간의 변개는 있다. 원작에서는 매회 그 내용을 요약한 한문 제목이 붙었는데 그것을 제거한 채 상하편 구분 없이 한 책으로 하였고, 전체적으로 원작의 내용이 축소·조정되었다. 특히 구니노가 이부무라로에서 열변을 토하는 장면(상편 제2회)에서 그 연설 내용이 대폭 삭제되었고, 구니노의 옥중 장면(상편 제6회) 역시 크게 줄어들었던 것이다.

여기서 간단히 두 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자.

여주인공 도미나가 오히루(富永お春)를 장매선으로 고쳤다. 가난한 열혈지사 구니노와 결혼하는 오히루는 자유민권운동을 후원하는 지주·부르조아지를 상징하는데, 변안자는 오히루의 절개에 더 매혹되었던가? 필자가 보기에 ‘눈속의 매화’는 이중의 상징이다. 간난속에서 자유민권운동에 헌신하는 구니노의 상징이자, 유혹을 뚫고 구니노에 대한 丹心을 지키는 오히루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변안자의 작명은 그럴 듯하다.

남주인공 구니노 모도이(變名은 후까야 우메지로[深谷梅二郎])는 이태순(변명은 심량)으로 바꾸었다. 구니노 모도이는 나라의 기초라는 우의적인 명명인데, 변안자는 대한제국의 태평과 순조로운 발전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이태순으로 고쳐 부르고 있으니 이 또한 흥미롭다.

오히루의 고모부로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나가노(長野)현 사족 출신의 후지이 곤베(藤井權兵衛)는 전라도 長興출신으로 덕적첨사를 지낸 권첨사로, 후지이를 움직여 오히루를 나꾸려는 변호사 출신의 세이기사(正義社) 수령 가와기시 히야우스이(川

岸萍水)는 독립협회 회원 하상천으로, 세이기사의 과격파 다께다 다께시(武田猛)는 독립협회 급진파 문전철로, 가와기사의 심복으로 활동하는 세이기사의 사원 마쓰다 하지메(松田肇)는 송군서로, 그밖의 세이기사의 지사들, 예컨대 아마노 곤지로(天野權次郎)는 권중국, 아끼노 쓰루사부로(秋野鶴三郎)은 전학삼, 스다하이노스께(須田蠅之助)는 전성조로 바뀌었으니, 변안자의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데 변안자의 고심 가운데 가장 빛나는 대목은 《셋쥬바이》의 자유민권운동을 우리나라의 독립협회운동(1896~1898)에 비정한 점이다. 자주·민권·자강 사상에 입각해 대중적 기초 속에서 반외세·반봉건 투쟁을 전개한 독립협회 운동은 제한점이 없지 않지만 우리 민족운동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거니와, 더구나 애국계몽기(1905~1910)의 계몽주의사상 및 그 실천운동의 직접적 뿌리가 되고 있음에라.

그럼에도 독립협회 운동을 직접적으로 다룬 소설은 《설중매》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 李在銑교수는 槃阿의 《夢潮》(1907)에 등장하는 한대홍이 “독립협회의 멤버를 모델로 한 듯”²⁸⁾하다고 추정했지만, 이 작품을 아무리 정밀히 읽어도 그 증거는 없다. 이 점에서 독립협회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로 되는 《설중매》가 단순한 변안을 넘어서 애국계몽기의 소설사에서 중시되어야 할 이유가 스스로 밝을 터이다.

5. 《설중매》와 독립협회 운동

이 작품은 더 정확히 독립협회운동(1896.7~1898.12)의 어느 시기를 직접적 배경으로 하였는가? 제2회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이 때난 춘삼월 호시절이라. ...광통교변 수월루 하에...한 신사가 우연히 다리가에 붙인 광고를 보니 금이십일 오후 일시에 새문밖 독립회관에서 정치연설로 개최한다 하고 그 옆에 허다한 출석 변사의 성명을 기록한지라. 같이 오난 친구를 불러 말하되 오날 독립회관 연설회에 가보지 아니 하랴난가? ...언간히 사람이 많이 모였으리.²⁹⁾

28) 李在銑, 《한국개화기소설연구》(일조각, 1975), 53면

29) 具然學, 《雪中梅》, (滙東書館, 1908), 6면.

이하 작품 인용은 따로 주를 달지 아니하고 이책의 면수만 표시함. 인용문은 필자가 현대표기로 고치고 띄어쓰기 했음.

愼鏞廈교수는 독립협회운동을 네 시기로 나누고 있다. 제1기(1896.7~1897.8)는 독립협회가 독립문·독립공원·독립회관의 건립에 주력하던 고급관료주도기, 제2기(1897.8~1898.2)는 토론회를 통해서 자주·민권·자강 사상을 대중화하는 민중진출기, 제3기(1897.2~1898.8)는 고급관료들이 탈퇴하고 정부를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운동을 펼쳤던 민중주도기, 제4기(1898.8~1898.12)는 관민공동회 및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의회개설운동을 펼침으로써 정부와 격렬히 대치했던 민중투쟁기.³⁰⁾

그러니까 길가던 신사가 우연히 독립회관 연설회 광고를 발견하고 모임에 참석하는 경위를 그린 위 인용문은 바로 독립협회운동 제2기 이후의 양상이다.

독립협회는 원래, 갑오경장을 추진한 온건개화파 관료들이 조직한 建陽協會(1896년 2월 8일 발기)를 한 모태로 한다. 물론 건양협회는 俄館播遷(1896년 2월 11일)으로 경장내각이 붕괴, 정식 발족이 유산되었지만 당시 관료사회 내부에 광범한 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초대 독립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安駟壽(소설가 安國善의 양부) 역시 건양협회 세력이었다. 여기에 徐載弼·尹致昊·李商在·李完用 등 주로 외무관료로 구성된 貞洞俱樂部세력과, 南宮櫛·吳世昌을 위시한 독립파 중견관료세력이 가세하여 독립협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³¹⁾

그런데 이처럼 고급관료가 주도하던 독립협회운동은 1897년 8월부터 시작된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을 대변하는 청년 지식층이 대거 가세하면서 반정부적 기운이 농후해졌다. 소장파·혁신파·신진파의 별명으로 불린 이들 청년지식층의 대두 속에서 독립협회는 “급진·완화 양파가…水油之別로 각립”³²⁾하고 마침내 제3기에 들어서 고급관료들이 일제히 협회에서 탈퇴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탄압도 강화되었다. 《설중매》 제2회 독립회관 연설회 장면이 이 점이 살감나게 그려져 있다. 독립회관 입구에는 순검들이 입장객을 일일이 검문하고 안에서는 칼을 찬 경무관의 입회 아래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에서 당시 정부와 독립협회 사이의 긴장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또한 경찰은 독립협회 회원의 일동일정을 면밀히 감시하였으니, 편지 왕래까지 사찰했던 것이다. 《설중매》 제6회에는 이태순

30) 愼鏞廈, 《독립협회연구》, (일조각, 1976), 89~90면.

31) 嶺峽, 82~86면.

32) 《獨立協會沿革略》, 《창작과 비평》16호 (1970년 봄), 116면.

이 문전철에게 보낸 편지를 기화로 경무청에 연행되어 옥고를 치르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이태순이 日英字典 《다이아몬드》를 사두었다는 편지 구절에서 그만 실수로 다이내마이트로 표기했다가 고쳐쓴 대목을 경무청이 문제 삼은 바, 독립협회 소장파의 동정에 이만큼 민감했던 것이다. 정부가 비호하는 테러단체 황국협회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린 제4기 민중투쟁기의 독립협회는 실제로 다이내마이트를 사용하여 李容翊·申箕善 등 수구파의 저택을 폭파하기도 하였다.³³⁾ 물론 이 작품에는 이와 같은 제4기적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탄압은 강화되고 있다. 독립협회 지회에서 활동하는 남덕중은 말한다.

년전에 우리가 서로 동지지인을 천거하여 지회를 조직하매 백사가 진취되더니...지방 관리가 민권을 비리로 속박하여 회원이 영성해야질 뿐 아니라 무삼 의안이든지 모다 빙빙과거(氷氷過去: 세상을 어렵어름 지냄-필자)할 뿐이니...진실로 절통할 바이로다. (46면)

지방조직 확장에 소극적이었던 독립협회는 제3기에 지회설치에 대한 각 지방의 강력한 요구에 호응하여 해산되기 직전 1898년 12월에 전국적인 지역조직망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³⁴⁾ 그러니 이 이전에는 독립협회 중앙의 냉담과 지방관의 탄압 속에서 고전했던 모양이다. 제3기 이후 독립협회가 지역조직에 주목하게 된 것도 소장파의 대두와 관련될 터인데, 그것은 이 작품에서 가장 급진적인 인물 문전철이 “지회를 조직할 일로 파주지방으로 향”(47면)하는 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상에서 볼 때 이 작품에 그려진 독립협회운동은 제2기와 제3기적 양상, 다시 말하면 민중을 대변하는 소장파가 대두하여 그 노선이 좌우파로 분기하는 전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 속에 펼쳐지는 시간대가 현실과 꺾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설중매》의 시간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3) 菊池謙讓, 《朝鮮雜記》 제2권, (鷄鳴社, 1931), 120~122면.

34) 愼鏞廈, 앞책, 106~107면.

- ㄱ) 추풍이 소슬하야 (제1회, 6면)
- ㄴ) 이 때난 춘삼월 호시절이라(제2회, 6면)
- ㄷ) 이 때에 이태순은 오월 열흘날 아침에(제5회, 29면)
- ㄹ) 이 때난 칠월 망간이라(제7회, 34면)
- ㅁ) 일쌍 청조가 매화가지 우에서 꽃을 회롱하니(제13회, 64면)

그러니까 가을에서 시작하여 이듬해 봄·여름을 거쳐 그 이듬해 초봄에서 끝난다. ㄴ)이 바로 독립회관 토론회 장면의 배경인데, 이태순의 연설 가운데 독립협회가 년 전에 창립되었다고 하때 ㄴ)은 1898년 봄으로 된다. 다시 정리하면 1897년 가을에서 시작하여 1899년 초봄에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행복한 결말과 달리 독립협회는 1898년 12월 말에 대탄압 속에 궤멸되었으니, 사실주의의 기율이 어그러졌다. 이런 착오가 더러더러 눈에 띈다. 가령 권침사의 부인이 앞에서는 립씨(41면)였다가 뒤에 가서는 정씨(59면)로 바뀐 점도 그렇다. 또한 이 작품에는 하상천이 변호사로 등장하는데, 우리나라 변호사제도는 1905년 변호사법이 공포되어 이듬해에야 세명의 조선인 변호사가 탄생했으니, 독립협회시대에는 변호사가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원작에 너무 충실하여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더욱 절실한 천착이 부족하였던 것이다. 원작의 구조를 철저히 해체하여 우리 현실에 입각해서 재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6. 《설중매》의 인물유형과 기본구성

이 작품에는 독립협회에서 활약하는 지식청년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들은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민중의 대두와 함께 운동으로부터 이탈해가는 층, 둘째는 온건파, 셋째는 급진파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는 이 세 부류를 각기 대표하는 하상천·이태순·문전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하상천은 “년기(年紀: 대강의 나이-필자)가 삼십내외간쯤”(60면)이니, 20대의 이태순·문전철보다 연장자이다. 직업은 代言人 곧 변호사인데, 매선과의 결혼을 주선하면 권침사의 빚 천금을 淸帳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듯이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다.

작가는 그의 풍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머리에는 정자관(程子冠 : 儒者가 쓰는 관-필자)을 쓰고 몸에 생주주의(生袖周衣 : 생 명주 두루마기-필자)를 입고 청공단 보료에 안석을 의지하여 앉았고 벽상에 전령도를 걸었으며 화병에 백일홍 두어 가지를 꽂았고 책상 위에 범규류취 이삼권이 있고 (60면)

그 호화로운 풍모가 생생한데, 잇속은 영악하기 짝이 없다. 큰 돈을 던지면서 매선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실은 부모가 주혼하신 바이로대...본가로 쫓아 보내고 그 후에 전주집을 다녀왔더니...근래 사회의 풍조가 변하여 옳으로 차차 부인들도 공회 같은 데 참여하난 일이 있으니...창기의 무리로 가속을 삼난 것은 창피할지라. 우리도 타일에 뜻을 얻어 내외 신사를 교제하라 한 즉 아모쪼록 시세에 합당한 부인을 취하지 아니면 불가할지라. 그 여자(장매선-필자)난 인물도 불초치 아니하고 학문도 있으며 영서도 능통하다 하니...한번 혼례 곧 하면 그 여자의 재산이 모다 나의 차지 될지오. 성사한 후에난 천원 돈도 허비할 필요가 없으니 다만 입으로 말만하여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권첩사도 ... 밀 구린 일이 있으니 어찌 능히 나를 정소하여 재판을 청하리오. (63면)

상업적 계약으로 전락한 부르조아지의 결혼관이 적나라하게 피력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건대, 하상천은 고급관료들의 사교구락부로 출발한 독립협회 초기 지도층을 암시한다. 독립협회 토론회에 번사로 참여하기로 약속하고서도 “병으로 출석지 못하는”(13면) 것도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터인데, 운동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치부와 출세에만 영리한 계산을 거듭하는 하상천은 바로 독립협회가 민중적 투쟁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투기분자인 것이다.

하상천의 대극에 선 사람이 이천 출신의 문전철이다. 그는 독립회관 연설회에서 응변한다.

나의 말쑥한 바 권리가 동등이 됨은 여러분도 아시난 바이어니와 타일 협회 성립할 때에 재산과 지식이 없난 자라 하여 하등 인민을 정권에 참여치 못하게 할 이치가 없난 것은 명백함이오. 구라파에서는 영미 제국은 동등권리의 주의를 행하고 호올로 압

제를 주장하난 덕국과 아라사 동국에난 전제정치를 행하야 행법상에난 편리하나 인민의 권리난 조금도 진보되지 못하얏으니 여러분은 우리나라 정치개량을 영미제국을 본 받을지오 덕국과 아라사 같이 전제정치를 행치 말지어다.(89면)

그는 독일과 러시아의 전제정치가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민주정치를 주장하였다.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주장이었으니, 당시 정부는 황제권에 도전하는 독립협회 소장파의 공화주의 사상에 깊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문에 공화주의자 문전철은 곳곳에서 부딪친다.

옥중에서 놓여 나온 후 이천 향계(鄉第: 고향집-필자)로 내려갔더니 모친의 병환 계시단 말은 실상이 아니고 전혀 나를 불러내려서 슬하에 두시라 하난 뜻이시기로 사세에 그렇지 아니함을 고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난 길이어니와...향중 서생들이 모다 전일 풍기만 지키고 인순고식 하난 사람뿐이라...내의 취수(就囚: 옥에 갇힘-필자) 되었던 일을 듣고 국사범이나 되난 줄로 짐작하고 상종을 끄리난 것 같고 나도 역시 자미 없어 이렇게 속히 오네.(44면)

보수적인 시골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상경하는 이 장면에서도 그의 진보적 성격은 짐작되는데, 그럼에도 거리낌없이 호협하다. 술을 경계하는 친구 이태순의 책망을 “술 있는 강산에 절사(傑士: 뛰어난 선비-필자)도 많다”는 옛말을 끌어 “술에 대하여난 너무 즐한”(45면) 이태순의 규모를 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개명을 지지하는 이태순에 비해 문전철의 여성관은 의연히 봉건적이다.

근래 여자들이 조그마치 학문이 있으면 너모 주제남아 남녀동등권리나 말끝마다 내세워 가정을 문란케하니 그야말로 식자우환이라 하노라.(47면)

이 대목은 그의 급진성이 얼마나 불철저한 것인가를 폭로하기보다는 그 순진성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태순은 문전철의 과격함을 우려하면서도 “정직한 사람”(21면)이라고 근본적 신뢰를 표명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전성조와 구별된다. 전성조는 겉으로는 “결사당을 조직”(20면) 운운하며 가장 과격한 주장을 내걸면서도 안으로는 동지들을 당국에 무고하는(66면) 타락분자이니, 이 때문에 이태순이 가장 경계

해마지 않는 것이다. 문전철은 주인공 이태순과 함께 이 작품에서 단연 이채를 발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물론 이태순을 지지하지만, 하상천·전성조를 그럴 때처럼 문전철을 비난하지는 않으니, 문전철은 독립협회 소장파의 급진적 경향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의 축은 이태순이다. 나이 이십사오세(9면), 역시 시골 출신이다.

소생이 십삼세시에 공부함이 필요한 줄만 알고 불초한 행동으로 부모께 고치 아니 하고 경성으로 올라와 혹 종적이 탄로될까 염려하여 잠시 심가라 변성(75면)

일찍이 봉건적인 가정을 탈출하여 어린 나이에 상경하였으니 당찬 젊은이다. 그럼에도 조선의 완고한 부모세대를 비난하는 전성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서양풍속이라고 어찌 다 아람다오며 우리나라 풍속이기로 다 악하리오? 마땅히 그긴 것은 취하고 썩은 것은 버릴지라. 부자의 관계난 우리나라에서 순실한 도덕을 주장하여 극히 아람다오나 법이 오래면 폐가 생김은 면키 어려움이라. 근래에 부모가 자녀를 노예 같이 대우하여 완고한 구속으로 전정을 그릇치난 것은 거세(擧世: 은세상-필자)가 일반이라. 사회상 발달에 방해가 되게 하니 우리가 마땅히 진력하여 이 폐단을 없이할 터이나 이 일을 행코저 할진대 차서가 있어 천륜을 상치 말며 감정이 없도록 할 바이니……오날날 서양 풍속에 한 지아비가 한 지어미를 거나리난 규모도 본받지 못하고 문명이니 개화니 하여 부모의 은덕을 먼저 저바리고 돌아보지 아니하난 자도 많이 있으나 부모도 모로난 사람이 어찌 사회상에 열심하여 몸을 잊어 바리리오?(18~19면)

맹목적 歐化主義를 비판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採西를 주장하는 이 대목에서도 그의 점진적·절충적 입장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그가 서양풍속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윗글에서도 서양의 일부일처제를 찬양하고 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부자관계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균형을 취한 것이다.

이태순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곤궁하다.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번역으로 생애하는 일개의 지식노동자인 것이다.

서책을 번역하여 생계를 하더니 거월에 《근대사》초권을 어느 서관에서 출판할 차로 가져가더니 아모리 재촉하여도 번역비를 보내지 아니하여 거월부터 식가를 갚지 못하

왔기로 아까도 주인에게 불쾌한 말을 듣고 심화가 나난 중에 마침 시골집 편지를 보니
.....연로하신 양친의 봉양할 도리가 없으니 이로 걱정이로다.(17면)

그는 시골에도 경제적 터전이 없으니, 우리 소설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근대적인 테리젠찌아의 형상이 아닐 수 없다.

곤궁한 서생 이태순은 호걸풍의 문전철과 달리 간간한 샌님풍이다. 문전철의 好酒를 경계했듯이 여자에 대해서도 청교도적이다.

내가 비록 용렬하나 연설장에서 부인에게 마암을 두난 정신없난 사람은 아니로다.
(16면)

세상을 건질 큰 뜻을 품은 남자가 아녀자에게 고히할 바난 아니로대(37면)

이것은 결코 허세나 위선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느 인물보다도 여성문제에 대해 개명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난 제일 여자사회를 개량하야...완고한 습관이 뇌수에 인박인 이십 이상 인물은
말할 것 없고 천진으로 있난 소아들을 새 정신 새 사상이 들도록 하자면 여자사회가
진보되야 집집이 가정학문이 있는 연후라야 가히 되리라.(46면)

이 대목은 원작에도 없는 것인데, 이태순은 가정교육의 중추인 여성의 의식을 개혁함으로써 독립협회운동의 대중적 기초를 구축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독립협회는 '총명의 평등론'에 입각하여 여성억압적 관습과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고,³⁵⁾ 여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북촌의 부인들이 창립한 贊襄會는 독립협회 운동의 열성적 지원단체의 하나였다.³⁶⁾

이태순은 여성사회 개량과 함께 연희장 개량에 적극 찬동한다. 연희장 개량을 주장하는 신문 논조에 대해 남덕중이 정치개혁이 바쁘데 "어느 여가에 그만 일로 떠드난고"(49면)하며 마뜩치 않아하자, 이태순은 반박한다.

35) 윗책, 628면.

36) 윗책, 118~119면.

동서양을 물론하고 풍속개량하난 효험이 학교가 제일이라 하겠으나 그 효험의 속함으로 말하면 연설이 학교보다 앞서고 소설이 연설보다 앞서난데 소설보다도 앞서난 것은 연회라 하나니……우리나라 연회장은…그 유희하난 규모난 모다 이십년전 구풍으로 압제정치만 알던 시대의 사상을 숭상하여 리도령이니 춘양이니 하난 잡설과 어사니 부사니 하난 기구를 주장해서 꼭두니 무동이니 의미 없는 유희로 다만 부랑남자의 도회장이 되어 문명풍화에난 조금도 유익할 바가 없으니…하로라도 바빠 그 방법을 개량하여 역사의 선악과 시세의 가부를 자미있게 형용한 후에야 남녀구경하난 사람의 안목에 만족할 것이오 외국 사람에게도 조소를 면하리도다. (49~50면)

물론 이 논의는 독립협회 시대의 것이 아니다. 연회장이 설립되어 번성하기는 주로 1900년대이니, 《설중매》 발간을 전후하여 연회장 개량의 여론이 비등했다. 가령 《대한매일신보》는 구래의 《춘향가》나 《심청가》가 아니라 “국민의 애국성을 주조”할 새로운 민족극운동을 제창한 바 있다. (1908. 11. 8)³⁷⁾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는 이태순의 입을 빌어 당시 가장 빈번히 무대에 올랐던 《춘향가》를 비판하였던 것인데, 그것은 《자유종》(1910)에서 《춘향전》·《심청전》·《홍길동》을 비판하고 새로운 국민주의문학을 제기했던 이해조와 연결된다.³⁸⁾

이태순의 연회장개량론에는 그 여성개명론과 함께 독립협회운동을 어디까지나 민중적 투쟁체가 아니라 계몽운동체로 끌어가려는 이태순의 의도가 깔려있다. 그는 독립협회를 고급 사교구락부로 한정하려는 하상천에 대해서는 문전철과 함께 반대하지만 민중적 투쟁체로 선도하려는 문전철의 급진적 입장에도 또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리하여 그는 “독립의 사상을 연구하며 자유의 전력을 양성치 못하고 다만 급거히 정부를 공격”(11면)만 하는 과격한 언론을 자제하자고 주장하기조차 한다.

서양제국에서도 하등 인민들의 사회당을 조직하여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함은 다 세상에 뜻을 얻지 못한 학자들이 선동함을 인함이라. (48면)

그는 이미 사회당에 대해서도 짐작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우리 문학에 사회당이 등장하는 최초의 용례로 될터인데, 이태순은 독립협회 소장파가 가운데 온건에 속하

37) 李杜鉉, 앞책, 31면 참조.

38) 崔元植, 앞글, 58~59면 참조.

는 인물인 것이다. 물론 급진파에 대한 그의 우려가 아주 일리 없는 것은 아니다. 독립협회 소장파는 국민대중 속에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는 내부조직의 강화보다는 자주 모험주의로 흘러, 예컨대 입헌군주제를 강령으로 채택하고도 지나치게 공화제를 강조하여 황제와 수구파의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그렇다.³⁹⁾ 그러나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태순의 논리는 일종의 준비론으로 변질될 위험이 다분하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품 제3회, 여관방에서 이태순이 蘇秦의 고사를 읽는 장면에서 주목해야 한다. 세치 혀를 놀려 여섯나라의 재상을 일시에 겸했던 전국시대의 說客 소진의 끈공했던 초년시절을 독서하면서 객주주인에게 밥값도 내지 못하고 주눅든 이태순 자신의 궁핍을 돌아보고 탄식을 마지 않다가 그는 다짐한다.

소진도 일시의 곤란을 겪으며 뜻을 가다듬아 필경 육국 상인(相印: 재상의 인끈-필자)을 허리에 띄었다하니 나도 재조와 담략을 가지고 신고를 견대여 큰 사업을 성취할지니...좋은 때 돌아오기를 기다릴지로드. (14~15면)

그는 결코 하상천 같이 천박한 출세주의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현달에의 강한 욕구를 내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원작자의 별호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당의 재상 송광평을 흠모한 데서 유래한 것도 이와 관련될 터인데, 이것이 이태순의 관계이자 《설중매》의 제한점이다.

이태순과 함께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인물이 여주인공 장매선이다. 그녀가 장애를 극복하고 아버지가 맺어준 이태순과 결혼에 성공하는 과정이 이 작품의 기본구성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나이는 18세(40면), 원래는 전라도 장흥 사람으로 몇년전 상경하여 남촌 후곡에 살고 있다. 그녀의 신분은 아마도 양반으로 짐작된다. 그녀의 후견인 권첨사는 “본래 장흥 사족으로 십사오년전에 덕적 첨사(僉使: 종삼품 무관벼슬-필자)를 다녀온”(53면) 자인데, 그와 同鄉世誼가 있다고(53면) 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집안은 권첨사·이태순과 달리 부요하다. 그런데 전통적인 양반지주는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집의 약간 재산과 문권은 다 너의 부친이 진력하여 작만”

39) 愼鏞廈, 앞책, 520면.

(5면)했다고 매선에게 술회했듯이, 자수성가한 부르조아지인 것이다. 이 점에서 권첨사가 근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양반의 형상이라면, 매선의 아버지는 근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말하자면 ‘시민화한 양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매선의 아버지는 딸의 교육에 대해서도 개명적 태도를 보여준다.

지금 세상의 계집아해난 예전 풍기와 같지 아니한고로 침선 방적은 대강이나 알아 두면 고만이로되 학문은 넉넉히 힘쓰지 아니치 못한다.(3면)

이처럼 개명한 아버지 아래 성장했음인지 그녀는 나이 답지 않게 숙성하다. 상경하자 아버지를 잃고 이어 어머니가 병사하여 졸지에 고아가 됐음에도 영어학당에 다니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세워 나가는 것이니, 특히 남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이태순과 장매선의 결연과정에서 시종일관 주도권을 행사하는 쪽은 매선이다. 그녀는 독립회관 연설회에서 이태순의 도도한 응변에 감동하여 곤궁한 그에게 30원을 보내주고(제4회), 북한사에서 이태순이 시를 읊조리자 연모의 뜻을 담은 시로 화답하고(제8회), 문산포 주막에서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사소한 예절에 구애하여 평생을 그르침보다 차라리 부끄럼을 무릎쓰고 구곡간장에 맺혀 있난 의점을 깨쳐 보리라”(43면)고 다짐하면서 직접 그에게 나아가 당돌히 질문하는 것이다(제9회). 그것은 권첨사가 그녀에게 하상천과의 결혼을 강권하는 대목에서 “결혼 일사난 소녀의 마암대로 하게 바려두심을 바라”(55면)노라고 단호히 거절하는 데서 더욱 뚜렷하다.

이에 대해 이태순은 염결이 지나쳐 졸렬하기조차 하다. 매선을 흠모하면서도 속정을 토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상천의 책략에 말려 그녀를 음탕한 여자로 치부하여 안으로 속을 꿰밀 뿐이다. 이 위기 또한 매선의 주도로,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는 편지를 이태순에게 보냄으로써 해결된다. 이 만남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사모하는 이태순이 바로 아버지가 사위감으로 가렸던 심랑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이로써 두 사람의 결연은 완성되는 것이다.

신소설 속에서 장매선처럼 대담한 여성도 드물다. 장매선은 아마도, 이해조의 《홍도화》상권(1908)에 나오는 이태희-완고한 시골 양반집에 억지 시집을 갔다가 청상이 되어 마침내 시집을 탈출하여 자신이 흠모했던 심상호에게 재가하는 이태희에 버금

가는 인물인 것이다.⁴⁰⁾ 그런데 장매선의 적극성은 이태희와 달리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구도속에 갇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녀의 근대성은 봉건적인 것과 기묘하게 절충되어 있으니, 그것은 근대의 외피를 둘러쓴 봉건성에 다름 아니다.

장매선과 이태순의 결연과정은 허다한 결합을 노출하고 있다. 매선의 아버지가 열세살 때의 태순을 보고 사위감으로 정한 것, 그 이후 10여년이 지나도록 두 사람이 상봉하지 못하는 것, 매선의 부모를 잇따라 병사하게 함으로써 매선을 고아로 만든 것, 그리고 것처럼 당찬 아가씨가 열세살 때 박은 이태순의 사진만 보고 일편단심 따르는 것—사실주의의 기울기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그리고 보면 여주인공이 부모가 어릴때 맺어준 남주인공과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결연하는 《설중매》의 기본구성이 우리 구소설과 낫설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가령 李侍郎의 아들 대봉과 張翰林의 외딸 애황이 右丞相 왕희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성례하는 《李大鳳傳》과 흡사하다. 요컨대 《설중매》는 그 기본구성에서 보면 일종의 양장한 구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남주인공 이태순의 절충적 사상성과 긴밀히 호응하는 것이다.

7. 맺음 : 《설중매》와 그 이후 소설

이상에서 검토했듯이, 정치소설 《설중매》는 변안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독립협회 소장파의 사상과 실천을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우리 근대소설 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이 점에서, ‘돈이나, 사랑이나’식의 그릇된 질문을 던짐으로써 공포의 무단통치시대의 억압적 현실로부터 독자들을 멀리멀리 끌어가는 최면제 역할을 했던, 《장한몽》(1913~1915)으로 대표되는 1910년대의 일본신파소설 변안파⁴¹⁾는 날카롭게 대비된다.

그러나 애국계몽운동 노선을 지향하는 《설중매》도 그 근대적 외관의 한층을 벗겨내면 봉건적 구소설의 기본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절충성은 1910년대로 들어서 우리 근대소설 발전도상에서 하나의 질곡으로 변모하고 만다.

40) 崔元植, 앞글, 80~89면 참조.

41) 崔元植, 〈장한몽과 위안으로서의 문학〉,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 94면.

여기에서 우리는 1910년대 신소설의 친일통속화를 선도한 崔瓚植의 《추월색》(1912)에 주목해야 한다. 이시종의 딸 정임이 부모가 어릴 때 맺어준 김승지의 아들 영창과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하는 데 성공하는 기본구성을 지닌 《추월색》은 이미 趙東一교수가 분석했듯이 《이대봉전》을 비롯한 구소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⁴²⁾ 《추월색》이야말로 양장으로 갈아입은 구소설의 전형인데, 그 양장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매개항으로 《설중매》를 설정하고자 한다. 물론 《설중매》의 애국계몽사상을 최찬식은 《추월색》에서 친일개화론으로 변질시켰지만.

그것은 李光洙의 《무정》(1917)에까지 잔영을 드리우고 있다. 필자는 심순애가 김중배와 이수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장한몽》의 삼각관계가 《무정》에서는 이형식이 김선형과 박영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작품의 연속성을 제시한 바,⁴³⁾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맺어준 이형식과의 인연에 丹心을 바치는 영채의 삽화는 《이대봉전》에서 근원하여 《설중매》와 《추월색》에 연결되는 것이다. 다만 《이대봉전》·《설중매》·《추월색》과 달리 영채와 형식의 결합은 좌절되거나, 여기에서도 《무정》의 근대성이 돋보인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이 있다. 과연 영채의 형식에 대한 단심이 단순히 아버지가 정해준 어린 시절의 인연 때문만일까? 비록 봉건적인 덕목이란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단심의 근본은 춘향이처럼 기생으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신분상승의 욕구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영채의 형상 속에는 《이대봉전》류와 《춘향전》류에 등장하는 여주인공들의 이미지가 절충되어 있으니, 구소설의 형식을 빌어 구소설을 부정함으로써 《무정》의 근대성이 확보되었던 터이다.

요컨대 《설중매》에 등장하는 장매선의 이야기는 특히 애국계몽기 이해조의 소설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근대성을 1910년대 소설사에서 《이대봉전》류로 퇴행시키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장매선 이야기가 드러내는 불철저한 근대성이 다시 극복되는 것은 언제인

42) 趙東一,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서울대출판부, 1973), 43~46면.

43) 崔元植, 《장한몽과 위안으로서의 문학》, 83-84면

가? 여기서 이광수의 장편 《개척자》(1917~1918)에 유의해야 한다. 일찍이 金東仁이 《춘원연구》(1934~1938)에서 이 작품은 “논하지 않는 편이 도리어 점잖다”⁴⁴⁾라고 혹평한 이래 이 작품에 주목하는 연구자가 거의 없는데, 필자가 보기에 《개척자》는 오히려 《무정》에서 진일보한 작품이다. 물론 두 작품 모두 반제의식이 미약하다는 치명적인 한계는 있지만, 《개척자》의 여주인공 김성순은 획기적인 여성상이 아닐 수 없다. 조흔한 처가 있는 청년 미술학도 민은식과의 대담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오빠가 정한 신랑감을 거부하고 마침내 자살로 마감하는 성순의 형상은, 약간의 신파조가 없지 않지만, 1910년대 소설의 봉건성과 근대성의 절충을 깨뜨리고 애국계몽기의 이래로 소설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인데, 이 작업이 3.1운동 전야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상징적이다.

44) 《金東仁全集》 6권 (三中堂, 1976), 97면.